

LADY 특별대담



평민당 부총재

박영숙
70

가정에도 야당목소



MBC 앵커맨

손석희

“
평민당의 박영숙
부총재와 문화방송의
손석희 기자가 지난
12일 여의도에서 자리를
함께 했다. 두 사람은
이즈음의 정치, 사회,
그리고 여성문제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

안팎으로 바빴던 지난 4월 한달

손석희 : 박 부총재님, 안녕하세요
니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우
선 지난 총선 결과를 축하드립니
다. 총재 권한 대행으로 선거 대
책 위원장으로 고생이 많으셨겠
습니다.

박영숙 : 예 주변에서 많이 도와
주셨지요. 정치엔 경험이 별로 없
었지만 팀워크가 잘 이뤄졌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이
당을 이끌어야겠다 하는 생각 보
다는 바로 앞에 닥친 선거라는
특수 과제를 풀겠다는 의욕으로
대처했으니까 부담은 좀 덜했다
고도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재정
적으로나 다른 여건으로나 어려
운 선거였기 때문에 고생은 많았
습니다. 물론 저 혼자만의 고생
이 아니었어요.

손 :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마찬

리가 커졌습니다



“**제가 여성을 대변하겠다는 건 여성이 약자이기 때문이지 제가 여성인 때문은 아닙니다. 이번엔 가족법 개정 문제를 회기 초에 상정시킬 것이고 남녀고용평등법에도 실질적인 힘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가지었습니다만 이번 총선에서 더욱 극심했는데 지역당으로서의 한계를 과감하게 벗어나는 것이 평민당의 선결 과제인 듯 한데요, 그러나 평민당의 지지세력은 이른바 기층민 아님니까? 그런 사람들의 요구를 따르다보면 일반 중산층에게는 지나치게 과격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십상이라는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박 : 이번에는 4당이 모두 ‘지역당’의 양상을 보였어요. 그러나 평민당이 현재의 지지기반의 요구만을 받아들이면 자기 발목을 묶는 꼴이지요. 어느 정당이나 대전제는 ‘수권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정권을 이어받을 준비를 갖춰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기본 모토가 전국민을 중산층화 시킨다는 것이었죠. 저는 비 호남인이거든요. 평양 출생이지요. 그런데 왜 호남인을 지원하고 싶어 하느냐 하면 그간 가장 소외받은 사람들이 호남인들이기 때문에, 즉 정의 운동의 차원에서요. 그러나 중산층 이상이 갖고 있는 평민당에 대한 사시(斜視)는 좀 오랜 세월이 걸려야 해소되겠죠.

손 : 이번 선거에서 평민당 후보가 호남에서 1백프로 전승한 것을 보고 참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간 얼마나 소외받았으면 그런 결과를 낳았을

까 하는 생각도 물론 있었지만 역시 걱정되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평민당은 이번에 가장 경제적인 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가장 적은 후보를 냈고 전체적으로는 많은 표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제1야당이 되었다는 점을 보면 말입니다. 전국민적 지지를 받기에는 좀 미흡하다는 이야기죠.

박 : ‘바람’에 의지했었다고 볼 수 있지요. 왜냐하면 힘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으니까요. 당을 정비한 것도 5달 밖에 지나지 않았고, 조직력도 형편없었죠. 그러니 바람에 의지할 수밖에요. 그건 인정해야 합니다.

손 : 다음 선거에선 전국에 걸쳐서 고루 후보를 내시고 고르게 당선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지 않는 한 국민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당이 될 수는 없을 테니까요.

박 : 물론이죠. 여당은 물론이고 3김씨도 대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라면 지역당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필연적인 과제지요. 차별한 조직을 갖추고 무엇보다도 ‘정책’으로 대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손 :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좀 들어보기로 할까요? 오랫동안 여성운동에 앞장서셨고 또 제1야당의 유일한 여성 부총재이시기 때문에 여성 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계실 텐데요, 또 여성 문제가 그

만큼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고정화된 여성의원의 역할은 뛰어넘어야

박 : 지금까지는 당의 일반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바빴었지요. 사람들이 싱킹 보트 (가라앉는 배) 라고 대놓고 이야기할 만큼 위기 상황이었으니까 제 역할도 당연히 그런 난제들을 푸는 쪽으로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여성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시간은 없었습니다. 제가 여성이라는 사실, 오랫동안 여성 운동을 해온 사람이라는 사실조차 잊을 지경이었지요. 그런데 지난 번 임시 전당대회 때 부총재 여섯명에게 인사를 하라더군요. 저는 그 때 ‘평민당의 보다 열렬한 지지층은 여성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당직 분배에서는 여성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여성 정책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하고 말했는데 박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평민당은 국민의 당인데 그 국민의 반은 여성이다. 그런데 박수가 나오지 않을 만큼 이 자리엔 여성 당직자가 없다. 나는 여성을 위한 일에 힘쓰겠다’ 고 했지요. 그러나 전 과거의 통념처럼 여성 의원이면 당연히 보사분과위에 들어가 여성 문제만을 논하는 식의 활동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제가 여성을 대변하는 것은 여성이 약자이기 때문이지 제가 여성이기 때문은 아니거든요. 여성당원 훈련이라든가 지역구 진출이라든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쏟으려 합니다. 또 그간 가장 시급한 현안이면서도 두고두고 해결을 보지 못했던 가족법 개정 문제에도 물론 전력을 기울여야죠. 가족법은 늘 맨 마지막 회기, 마지막 의회에서 상정되었기 때문에 지역구의 유람들 눈치 보느라 흐지부지되곤 했거든요. 여성은 수적으로는 굉장히 큰 세력이지만 조직화되지 못한 약점 때문에 여성의 요구는 늘 무시되어 온 것이지요. 이번에는 반드시 회기 초에 가족법을 상정할 것입니다. 또 남녀 고용 평등법도 취지야 좋지만 전혀 아무런 구속력이나 제재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번에 최일남 선생님과 만났는데 국회에 들어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이라고 물으시면서 전체를 달라고요. 여성 대표라고 해서 꼭 여성 문제에만 신경을 쓰겠다는 발언에는 식상했노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난 ‘형평의 원칙’을 고수하려는 사람입니다. 어느 부분이 기울어지나, 어느 계층이 소외받고 있나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당연히 여성문제와 대면하게 되는 겁니다.

손 : 저는 페미니스트라고 자부하고 있어서 말씀인데요 (웃음). 소위 여성단체에서 일하는 분들이 여성 일반과는 썩 조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종종 갖게 됩니다. 유리되고 있달까요, 너무 앞서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앞에서 뛰는 사람들은 여러가지 의미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란 느낌이에요. 여성 대중 쪽에서 보면 열등감이 들 수도 있겠는데 그런 측면을 살피지 않고 무작정 앞서나가기만 한다면 성과를 얻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박 :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 면도 꼭 감안해야 되겠군요.

중요한 건 부부가 서로 존중하는 태도

손 : 이전 좀 개인적인 질문이 될 지 모르겠지만 박 부총재님이 처음에 평민당에 입당할 때 일부에선 운동의 차원에서 일하던 분이 정치계에서 잘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도 꽤 있었는데요.

박 : 그렇잖아도 남편이 이렇게 물어요, “해피(happy) 해?” 그래서 그런대로 괜찮다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잘 적응이 된 모양이군” 해요. 나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제일 걱정했던 것은 내가 과연 정치 판에 들어가서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30여년간 몸담아왔던 민주화 운동, 여성 운동과는 이제 장을 달리 해야 한다 하는 점에서도 그랬고 또 자유주의적 사고방식에 익숙해있던 사람이 적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었죠. 그러나 내가 놀던 물은 아니었지만 내가 하던 운동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여자가 당 총재하는 것이 어렵지

“**저도 뉴스 진행자로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때로 나름대로의 코멘트를 할 때가 있는데 반대 의견인 사람한테선 금방 항의가 들어오죠. 이제 야당이 옳으면 야당이 옳다, 여당이 옳으면 여당이 옳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않으냐’ 하고도 묻는데요. 나는 당직자 회의 때 의자에 등을 당당하게 기대는 적이 없었는데 여자가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실력과 경륜을 갖춘 당 총재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손 : 등을 대고 앉을 수 있는 여자 총재가 나와야죠.

박 : 그럼요.

손 : 방송에 대한 불만은 없으십니까?

박 : 옛날보다는 좀 덜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시청료 거부 운동을 제가 나서서 했는데 그 때는 정말 분노가 극에 달했었어요. 한가지 사건도 보도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아주 다른 일이 되어버리거든요. 예를 들어 한 학교의 상징색이 빨강인데 그 깃발을 마치 빨갱이들의 깃발인 듯이 비취준다고 생각해보요.

손 : 저도 뉴스 진행자로서 항의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때로 뉴스를 시작할 때나 끝낼 때 나름대로의 코멘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을 하곤 하는데 결국은 49쪽 보다는 51을 따라가게 돼요. 혼자 판단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보통은 중론(衆論)이 뭔가를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의견에 반대인 사람에게선 재까닥 항의 전화가 와요. 그게 현재의 우리 풍토이기도 하구요. 이전 “야당이 옳으면 야당이 옳다. 여당이 옳으면 여당이 옳다” 하

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성숙한 자세지요.

박 : 그래요. 우선 국민이 달라졌으니깐요. 4당이 전부 국민을 두려워하고 있기도 하구요.

손 : 참 열심으로 살아오셨는데 부총재님의 젊은 시절과 비교해 지금의 여성들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박 :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이 없어요.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교육수준, 의식, 개선해야겠다는 의지 등이 훨씬 강해요. 대견할 뿐이에요. 그들이 치받쳐올라오면 우리는 그저 자리 비켜주는 게 할 일의 전부라고 느껴질 만큼요. 그러나 어느 세대나 마찬가지로 나만 잘돼야겠다는 생각은 곤란해요. 주변에도 관심을 가져야 원하는 사회가 오지요.

손 : 안병무 선생님과 결혼생활이 두루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듯 하던데요.

박 : 남편은 지금도 결혼을 부정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결혼이 이기주의의 결정체라고 보는 독신주의자요. 그러나 남편은 인간관계 관리를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묶어두기만 하면 욕구불만만 쌓인다는 사실을 일찌기 깨닫고 내 활동을 지원해주었으니까요. 그래도 난 집안일도 싫어하지 않는 편이에요. 우리집은 1주일에 2, 3회는 손님들에게 공개되는 집이거든요. 그런 것을 마다 하지 않고 내 손으로 하다 보

니까 손이 참 험해요. 그런데도 남편은 내가 살림하는 것이 당신 어머니와 비교해 시원치 않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당신은 결혼을 잘못했나 봐” 하면 “그래도 다시 고르라면 또 당신을 고를 거야” 하고 대답하지요. 그 말에 속아 평생을 살아온 셈이에요. (웃음)

손 : 참 부러운데요. 저도 작년 9월에 결혼했는데 우리 집은 아주 보통 가정이에요. 가끔 잔소리도 하고 또 바가지도 굵히고 하면서 살아요. 작은 의견차는 있지만 난 결혼을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내가 7월에 출산을 하고 나서는 직장을 갖겠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밀어줄 생각입니다.

박 : 부모님과 같이 사시나요?

손 : 예, 어머니와 함께 살죠.

박 :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위해서는 핵가족이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봐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부부간에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는 것이지요.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하면서 당연히 요구하는 것들이 자칫 상대를 억압하는 구실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손 :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모쪼록 멋진 정치 하시기 바랍니다.

박 : 손석희 기자의 더 큰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ㄴ**

☐ 진행·한혜진 기자

☐ 사진·나병우 기자

